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24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2025. 4.



한 국 소 비 자 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 목 차 ■

I. 분석개요	1
II.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2
1. 접수현황	2
2. 지역별 현황	3
3. 성별 현황	4
4. 발달단계별 현황	4
5. 위해장소별 현황	5
6. 위해품목별 현황	6
7. 위해유형별 현황	8
7-1. 품목별 위해유형 현황	9
7-2. 유형별 위해품목 현황	10
8. 위해부위별 현황	10
9. 위해증상별 현황	11
III.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14
1. 영아기(0세)	14
2. 걸음마기(1~3세)	18
3. 유아기(4~6세)	22
4. 학령기(7~14세)	26
5. 발달단계별 비교(5년)	30
IV. 위해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34
1. 미끄러짐·넘어짐	34
2. 추락사고	36
3. 놀림·끼임 사고	38
4. 이물 삼킴/흡인 사고	40
5.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42

V.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44
VI. 후속조치	48

▣ 표 목 차 ▣

[표 1] 최근 5년간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2
[표 2] 지역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5년)	3
[표 3] 성별 현황(5년)	4
[표 4] 발달단계별 현황(5년)	4
[표 5] 최근 5년간 위해장소별 현황(5년)	5
[표 6] 위해품목별 현황(5년)	6
[표 7] 위해다발품목 상위 15개 현황(5년)	7
[표 8] 위해유형 상위 15개 현황(5년)	8
[표 9] 주요 품목별 위해유형 현황(5년)	9
[표 10] 주요 유형별 위해품목 현황(5년)	10
[표 11] 위해부위별 현황(5년)	11
[표 12] 위해증상별 현황(5년)	11
[표 13] 사망사고 내용(5년)	13

[표 14] 영아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14
[표 15] 영아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15
[표 16] 영아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16
[표 17] 영아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17
[표 18] 걸음마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18
[표 19] 걸음마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19
[표 20] 걸음마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20
[표 21] 걸음마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21
[표 22] 유아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22
[표 23] 유아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23
[표 24] 유아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24
[표 25] 유아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25
[표 26] 학령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26
[표 27] 학령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27
[표 28] 학령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28
[표 29] 학령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29
[표 30] 발달단계별 발달단계별 인구 천 명당 위해정보 접수현황(2024년) ...	30
[표 31]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장소(5년)	31
[표 32]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품목(중분류) 현황(5년)	32
[표 33]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유형(5년)	33
[표 34] 최근 5년간 연도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현황	34
[표 35] 발달단계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현황(5년)	34
[표 36] 어린이 미끄러짐·넘어짐 상위 위해품목 현황(5년)	35
[표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추락 사고 현황	36
[표 38] 발달단계별 추락사고 현황(5년)	36
[표 39] 어린이 추락사고 주요 위해품목(5년)	37

[표 40] 최근 5년간 연도별 놀림·끼임 현황	38
[표 41] 발달단계별 놀림·끼임 사고 현황(5년)	38
[표 42] 어린이 놀림·끼임 사고 주요 위해품목(5년)	39
[표 43] 최근 5년간 연도별 이물 삼킴/흡인사고 현황	40
[표 44] 발달단계별 이물 삼킴/흡인사고 현황(5년)	40
[표 45] 이물질 삼킴/흡인 주요 위해품목(5년)	41
[표 46]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현황	42
[표 47] 발달단계별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현황(5년)	42
[표 48]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주요 위해품목(5년)	43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 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I

분석 개요

-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을 운영하고 있음.
- ☐ 어린이의 경우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성인보다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발달단계별 신체적·행동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 이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 어린이 정의 및 발달단계 분류 >

- ☐ **(어린이 정의)** '어린이'는 법령에 따라 지칭하는 연령대 및 명칭이 상이하며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 유소년 인구 기준에 맞추어 0세부터 14세를 유소년인구로 보고 이 연령대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 **(발달단계 분류)** 발달단계에 따라 어린이의 연령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4단계로 분류함

[어린이 발달단계에 따른 분류]

구 분		분 류
취학 전	0세	영아기
	1세 ~ 3세	걸음마기
	4세 ~ 6세	유아기
취학 후	7세 ~ 14세	학령기

II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1. 접수현황

- 2024년 우리 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16,409건으로, 전년 대비 5,962건(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19.2%로 전년(28.2%) 대비 하락하였으나,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10.9%)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1] 최근 5년간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안전사고 접수 건수	70,022	74,000	78,591	79,264	85,639
전체 안전사고 전년 대비 증감률	△4.1	5.7	6.2	0.9	8.0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수	18,494	15,871	21,642	22,371	16,409
전년 대비 증감률	△25.9	△14.2	36.4	3.4	△26.7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	26.4	21.4	27.5	28.2	19.2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	12.2	11.9	11.5	11.0	10.9

* 전체 안전사고 중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2. 지역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지역별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서울특별시' 3,091건(18.9%), '경기도' 2,840건(17.3%), '인천광역시' 1,607건(9.8%) 등의 순으로 변화는 없었고, 모든 지역에서 건수가 감소함.

[표 2] 지역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특별시	5,104	(27.6)	4,369	(27.5)	5,500	(25.4)	5,578	(24.9)	3,091	(18.9)
경기도	2,293	(12.4)	2,190	(13.8)	3,121	(14.4)	3,113	(13.9)	2,840	(17.3)
인천광역시	1,970	(10.7)	1,438	(9.1)	2,012	(9.3)	1,662	(7.4)	1,607	(9.8)
충청남도	617	(3.3)	647	(4.1)	1,148	(5.3)	1,579	(7.1)	819	(5.0)
부산광역시	1,402	(7.6)	1,114	(7.0)	1,391	(6.4)	1,349	(6.0)	742	(4.5)
세종특별자치시	71	(0.4)	436	(2.7)	1,074	(5.0)	910	(4.1)	647	(4.0)
대전광역시	490	(2.6)	542	(3.4)	463	(2.1)	668	(3.0)	559	(3.4)
대구광역시	776	(4.2)	654	(4.1)	1,067	(4.9)	1,284	(5.7)	472	(2.9)
전북특별자치도	259	(1.4)	132	(0.8)	292	(1.3)	700	(3.1)	469	(2.9)
강원특별자치도	935	(5.1)	613	(3.9)	973	(4.5)	738	(3.3)	412	(2.5)
울산광역시	643	(3.5)	566	(3.6)	718	(3.3)	643	(2.9)	384	(2.3)
제주특별자치도	896	(4.8)	706	(4.4)	863	(4.0)	795	(3.6)	375	(2.3)
경상북도	421	(2.3)	326	(2.1)	519	(2.4)	479	(2.2)	328	(2.0)
충청북도	605	(3.3)	616	(3.9)	836	(3.9)	665	(3.0)	287	(1.7)
광주광역시	759	(4.1)	642	(4.0)	880	(4.1)	545	(2.4)	253	(1.5)
전라남도	317	(1.7)	260	(1.7)	372	(1.7)	269	(1.2)	237	(1.4)
경상남도	158	(0.8)	147	(0.9)	124	(0.6)	118	(0.5)	52	(0.3)
해당없음·미상	778	(4.2)	473	(3.0)	290	(1.3)	1,276	(5.7)	2,835	(17.3)
전국	18,494	(100.0)	15,871	(100.0)	21,643	(100.0)	22,371	(100.0)	16,409	(100.0)

※ 발생지역은 위해가 발생한 장소임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두고 있는 자로 볼 수 없음.

3. 성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약 64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남아'의 안전사고는 9,912건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하였고, '여아'는 6,486건으로 39.5%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비율상의 변화는 없었음.
-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3] 성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아	11,002	(59.5)	9,563	(60.3)	13,109	(60.6)	13,438	(60.1)	9,912	(60.4)
여아	7,462	(40.3)	6,304	(39.7)	8,529	(39.4)	8,919	(39.8)	6,486	(39.5)
미상	30	(0.2)	4	(0.0)	4	(0.0)	14	(0.1)	11	(0.1)
합계	18,494	(100.0)	15,871	(100.0)	21,642	(100.0)	22,371	(100.0)	16,409	(100.0)

4. 발달단계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발달단계별 안전사고는 '걸음마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학령기', '유아기' 및 '영아기' 순으로 나타남.
- '학령기' 안전사고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운동능력의 향상으로 스포츠나 놀이시설 이용 등의 야외활동 관련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보임.
- '영아기'의 안전사고 비중도 매년 증가했는데, 이는 침실 가구, 유아용 가구 등에서 '추락 사고'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표 4] 발달단계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천 명당 접수건수
취학전	영아기(0세)	1,720	(9.3)	1,669	(10.5)	2,389	(11.0)	2,916	(13.0)	2,378	(14.5)	10.3
	걸음마기(1~3세)	7,933	(42.9)	6,485	(40.9)	8,235	(38.1)	8,240	(36.8)	5,796	(35.3)	7.5
	유아기(4~6세)	4,438	(24.0)	3,850	(24.3)	4,822	(22.3)	4,661	(20.9)	3,048	(18.6)	3.2
	소계	14,091	(76.2)	12,004	(75.7)	15,446	(71.4)	15,817	(70.7)	11,222	(68.4)	-
학령기(7~14세)		4,403	(23.8)	3,867	(24.3)	6,196	(28.6)	6,554	(29.3)	5,187	(31.6)	1.4
합계		18,494	(100.0)	15,871	(100.0)	21,642	(100.0)	22,371	(100.0)	16,409	(100.0)	3.0

* 발달단계별 인구 천 명 대비 안전사고 건수를 나타내며, 인구수의 영향을 배제한 수치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5. 위해장소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매년 '주택'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어 '교육시설', '도로 및 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는 비교적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2024년 현황) '주택' 10,049건(61.3%), '도로 및 인도' 1,553건(9.5%), '교육시설' 833(5.1%) 등의 순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 특히 '도로 및 인도'가 전년 대비 16.8%(233건) 증가해 상위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주로 어린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최근 5년 간 위해장소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택	13,218	(71.5)	11,286	(71.1)	14,219	(65.7)	14,563	(65.1)	10,049	(61.3)
도로 및 인도	1,528	(8.3)	1,203	(7.6)	1,598	(7.4)	1,330	(5.9)	1,553	(9.5)
교육시설	513	(2.8)	536	(3.4)	1,127	(5.2)	1,345	(6.0)	833	(5.1)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788	(4.3)	603	(3.8)	938	(4.3)	1,048	(4.7)	707	(4.3)
숙박 및 음식점	473	(2.5)	352	(2.2)	566	(2.6)	721	(3.2)	564	(3.5)
스포츠/레저시설	340	(1.8)	269	(1.7)	641	(3.0)	782	(3.5)	436	(2.7)
쇼핑시설	110	(0.6)	68	(0.4)	110	(0.5)	148	(0.7)	120	(0.7)
의료서비스시설	70	(0.4)	66	(0.4)	388	(1.8)	94	(0.4)	85	(0.5)
기타상업시설*	76	(0.4)	55	(0.3)	98	(0.5)	103	(0.5)	57	(0.3)
교통시설	32	(0.2)	17	(0.1)	55	(0.3)	76	(0.3)	38	(0.2)
자연 및 관련시설	33	(0.2)	29	(0.2)	22	(0.1)	14	(0.1)	22	(0.1)
종교 및 문화시설	12	(0.0)	1	(0.0)	20	(0.1)	38	(0.2)	17	(0.1)
공공시설	-	-	3	(0.0)	2	(0.0)	5	(0.0)	6	(0.0)
복지및노인요양시설	3	(0.0)	8	(0.1)	6	(0.0)	12	(0.1)	3	(0.0)
농·수·축산업 지역	7	(0.0)	3	(0.0)	5	(0.0)	3	(0.0)	2	(0.0)
그 외 또는 미상	1,291	(7.0)	1,372	(8.6)	1,847	(8.5)	2,089	(9.3)	1,917	(11.7)
합계	18,494	(100.0)	15,871	(100.0)	21,642	(100.0)	22,371	(100.0)	16,409	(100.0)

* 주유소, 세차장, 편의점, 제과점, 아·미용실 등

6. 위해품목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 발생 상위 3개 품목은 '가구 및 가구설비',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스포츠 및 취미용품'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스포츠 및 취미용품'의 접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2년부터 상위 두 번째를 차지함.
- (2024년 현황) '가구 및 가구설비' 4,451건(27.2%), '스포츠 및 취미용품' 3,229건(19.7%),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2,220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 및 가구설비'의 접수 비중(27.2%)이 전년(24.1%) 대비 증가했는데, 특히 '침실가구, 유아용 가구, 거실가구'의 안전사고 비중이 증가함.

[표 6] 위해품목별 현황(5년)

(단위 :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구 및 가구설비	3,745 (20.3)	3,448 (21.7)	4,682 (21.6)	5,398 (24.1)	4,451 (27.2)
스포츠 및 취미용품	2,809 (15.2)	2,613 (16.5)	3,833 (17.7)	3,941 (17.6)	3,229 (19.7)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3,934 (21.3)	3,205 (20.2)	3,716 (17.2)	3,402 (15.2)	2,220 (13.5)
완구 및 게임용품	2,478 (13.4)	2,022 (12.7)	2,416 (11.2)	2,196 (9.8)	1,458 (8.9)
가공식품	1,085 (5.9)	1,021 (6.4)	1,570 (7.3)	1,703 (7.6)	1,406 (8.6)
건물, 시설 및 서비스	769 (4.2)	635 (4.0)	1,087 (5.0)	1,344 (6.0)	857 (5.2)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531 (2.9)	420 (2.6)	504 (2.3)	577 (2.6)	451 (2.8)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269 (1.5)	233 (1.5)	645 (3.0)	534 (2.4)	393 (2.4)
주방기기 및 용품	520 (2.8)	329 (2.1)	464 (2.1)	492 (2.2)	342 (2.1)
도서, 음반 및 문구용품	609 (3.3)	460 (2.9)	694 (3.2)	745 (3.3)	336 (2.1)
축산·수산물 식품	217 (1.2)	198 (1.2)	306 (1.4)	321 (1.5)	246 (1.5)
식물 식품	240 (1.3)	191 (1.2)	307 (1.4)	330 (1.5)	228 (1.4)
자동차 및 관련 용품	328 (1.8)	259 (1.6)	388 (1.8)	330 (1.5)	220 (1.3)
생활용품	309 (1.7)	279 (1.8)	326 (1.5)	353 (1.6)	202 (1.2)
화장품 및 화장용품	232 (1.3)	208 (1.3)	227 (1.0)	224 (1.0)	115 (0.7)
의류, 신발 가방 보석 및 시계	157 (0.9)	141 (0.9)	184 (0.9)	174 (0.8)	84 (0.5)
연료 및 전지	77 (0.4)	65 (0.4)	83 (0.4)	98 (0.4)	54 (0.3)
기타 장비 및 제품	58 (0.3)	36 (0.2)	64 (0.3)	61 (0.3)	40 (0.2)
조명기구 및 전기 부품&용품	66 (0.4)	52 (0.3)	59 (0.3)	67 (0.3)	36 (0.2)
화재, 안전 및 보안 장비	26 (0.1)	29 (0.2)	47 (0.2)	51 (0.2)	24 (0.1)
애완 동·식물 및 용품	22 (0.1)	18 (0.1)	26 (0.1)	21 (0.1)	12 (0.1)
농임어업용 기계 및 관련용품	13 (0.1)	9 (0.1)	14 (0.1)	9 (0.0)	5 (0.0)
합계	18,494 (100.0)	15,871 (100.0)	21,642 (100.0)	22,371 (100.0)	16,409 (100.0)

□ (세부 현황) 위해발생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바닥재’, ‘침실가구’, ‘놀이터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년 ‘바닥재’ 접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침실가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2024년 세부 현황) ‘침실가구’ 1,936건(11.8%), ‘바닥재’ 1,643건(10.0%), ‘자전거’ 1,318건(8.2%) 등의 순으로, 2024년 ‘침실가구’가 상위 첫 번째를 차지함.

○ 특히, ‘자전거’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3%(372건)로 가장 높아 상위 3위를 차지하였고, 주로 자전거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위해다발품목 상위 15개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중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침실가구	1,540	(8.2)	1,420	(8.9)	1,988	(9.2)	2,331	(10.4)	1,936	(11.8)
바닥재	2,755	(14.5)	2,353	(14.5)	2,717	(12.4)	2,425	(10.8)	1,643	(9.9)
자전거	868	(5.3)	801	(5.3)	996	(4.7)	946	(4.3)	1,318	(8.2)
놀이터 시설	1,222	(7.0)	1,180	(7.5)	1,723	(8.1)	1,685	(7.6)	1,171	(7.1)
유아용 가구	473	(2.4)	535	(3.4)	810	(3.8)	1,062	(4.8)	997	(6.1)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075	(6.3)	866	(5.7)	1,003	(4.7)	905	(4.1)	743	(4.6)
완구	1,298	(7.1)	1,077	(6.7)	1,316	(6.0)	1,225	(5.5)	667	(4.0)
거실가구	572	(3.0)	466	(3.0)	593	(2.7)	664	(3.0)	553	(3.4)
문	921	(4.7)	643	(4.0)	768	(3.5)	778	(3.5)	436	(2.6)
의약품	134	(0.7)	116	(0.8)	501	(2.1)	362	(1.6)	304	(1.9)
주방가구	327	(1.7)	277	(1.7)	396	(1.8)	421	(1.9)	301	(1.8)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466	(2.6)	352	(2.2)	561	(2.6)	605	(2.7)	286	(1.7)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276	(1.5)	230	(1.5)	350	(1.7)	435	(1.9)	284	(1.7)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162	(0.9)	194	(1.3)	451	(2.1)	640	(2.9)	280	(1.7)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194	(1.1)	186	(1.2)	337	(1.5)	386	(1.7)	257	(1.6)
주방 가전	292	(1.6)	223	(1.4)	259	(1.2)	296	(1.3)	257	(1.6)

7. 위해유형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유형은 ‘미끄러짐·넘어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어 ‘추락’,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미끄러짐 넘어짐’ 5,217건(31.8%), ‘추락’ 4,846건(29.5%),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1,746건(10.6%) 등의 순으로 상위 3개 위해유형의 순위 변화는 없었음.
-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의 경우 매년 접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4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특히, 달걀을 섭취한 후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 발생이 잦은 것으로 보임.

[표 8] 위해유형 상위 15개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소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끄러짐·넘어짐	5,969 (32.3)	5,155 (32.5)	6,547 (30.3)	6,464 (28.9)	5,217 (31.8)
추락	4,144 (22.4)	3,750 (23.6)	5,274 (24.4)	5,796 (25.9)	4,846 (29.5)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1,328 (7.2)	1,244 (7.8)	1,978 (9.1)	2,114 (9.4)	1,746 (10.6)
부딪힘	1,222 (6.6)	1,066 (6.7)	1,470 (6.8)	1,272 (5.7)	697 (4.2)
눌림·끼임	1,274 (6.9)	939 (5.9)	1,168 (5.4)	1,198 (5.4)	663 (4.0)
이물질(기타)	895 (4.8)	760 (4.8)	957 (4.4)	1,017 (4.5)	548 (3.3)
베임·찔림	961 (5.2)	699 (4.4)	942 (4.4)	1,020 (4.6)	495 (3.0)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427 (2.3)	455 (2.9)	803 (3.7)	1,006 (4.5)	494 (3.0)
고온 물질	560 (3.0)	354 (2.2)	461 (2.1)	561 (2.5)	467 (2.8)
이물질(플라스틱)	739 (4.0)	613 (3.9)	737 (3.4)	634 (2.8)	366 (2.2)
약물 부작용	51 (0.3)	44 (0.3)	106 (0.5)	219 (1.0)	208 (1.3)
파열·파손·꺾여짐	220 (1.2)	181 (1.1)	226 (1.0)	230 (1.0)	161 (1.0)
이물질(금속)	210 (1.1)	195 (1.2)	230 (1.1)	253 (1.1)	123 (0.7)
이물질(액체류)	111 (0.6)	92 (0.6)	105 (0.5)	126 (0.6)	63 (0.4)
기타 의료시술 및 약물	46 (0.3)	37 (0.2)	357 (1.7)	51 (0.2)	45 (0.3)

7-1. 품목별 위해유형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상위 3개 위해품목의 주요 위해유형이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으로 유사하므로,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표 9] 주요 품목별 위해유형 현황(5년)

(단위: 건, (%))

주요 위해품목		주요 위해유형		
가구 및 가구설비	침실가구 (9,215건, 42.4%)	추락 (17,969건, 82.7%)	미끄러짐·넘어짐 (1,914건, 8.8%)	부딪힘 (748건, 3.4%)
	유아용 가구 (3,877건, 17.8%)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바닥재 (11,894건, 72.2%)	미끄러짐·넘어짐 (11,945건, 72.5%)	눌림·끼임 (2,487건, 15.1%)	부딪힘 (1,333건, 8.1%)
	문 (3,546건, 21.5%)			
스포츠 및 취미용품	놀이터 시설 (6,981건, 42.5%)	미끄러짐·넘어짐 (6,849건, 41.7%)	추락 (4,788건, 29.2%)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2,027건, 12.3%)
	자전거 (4,929건, 30.0%)			
완구 및 게임용품	완구 (5,583건, 52.8%)	미끄러짐·넘어짐 (4,583건, 43.4%)	이물질(플라스틱) (2,719건, 25.7%)	이물질(기타) (1,256건, 11.9%)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4,592건, 43.4%)			
가공식품	분식 (638건, 9.4%)	식품섭취에 의한 위해 (6,261건, 92.3%)	이물질(기타) (255건, 3.8%)	고온물질 (101건, 1.5%)
	유가공품 (621건, 9.2%)			
건물, 시설 및 서비스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1,575건, 33.6%)	미끄러짐·넘어짐 (3,721건, 79.3%)	눌림·끼임 (357건, 7.6%)	추락 (262건, 5.6%)
	교육·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1,360건, 29.0%)			
도서, 음반 및 문구용품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2,270건, 79.8%)	베임·찔림 (1,526건, 53.7%)	이물질(기타) (925건, 32.5%)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88건, 3.1%)
	서적·안배물 및 음반 (403건, 14.2%)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주방가전 (1,327건, 53.4%)	고온 물질 (1,374건, 55.3%)	부딪힘 (333건, 13.4%)	눌림·끼임 (195건, 7.9%)
	이미용 및 생활가전 (441건, 17.8%)			
주방기기 및 용품	식기, 접시 및 컵 (733건, 34.1%)	베임·찔림 (706건, 32.9%)	고온 물질 (619건, 28.8%)	파열·파손·꺾어짐 (311건, 14.5%)
	수저 포크 및 나이프류 (410건, 19.1%)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의약품 (1,417건, 68.3%)	약물 부작용 (627건, 30.2%)	기타 의료시술 및 약물 (535건, 25.8%)	이물질(기타) (241건, 11.6%)
	의료용구 (325건, 15.7%)			

7-2. 유형별 위해품목 현황

- (일반 현황) 위해유형별 주요 위해품목은 '미끄러짐·넘어짐'의 경우 '바닥재' 40.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4.6%, '자전거' 13.9% 등의 순이었고, '추락'의 경우 '침실가구' 36.3%, '놀이터 시설' 17.9%, '유아용 가구' 12.9% 등으로 나타남.

[표 10] 주요 유형별 위해품목 현황(5년)

(단위: 건, %)

주요 위해유형(소분류)	주요 위해품목		
미끄러짐·넘어짐	바닥재 (11,818건, 40.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4,283건, 14.6%)	자전거 (4,078건, 13.9%)
추락	침실가구 (8,644건, 36.3%)	놀이터 시설 (4,270건, 17.9%)	유아용 가구 (3,083건, 12.9%)
식품섭취에 의한 위해	분식 (626건, 7.4%)	유가공품 (578건, 6.9%)	유란류 (572건, 6.8%)
부딪힘	놀이터 시설 (1,105건, 19.3%)	문 (974건, 17.0%)	위생도기 및 욕실가구 (485건, 8.5%)
놀림·끼임	문 (2,323건, 44.3%)	기타 승용물 (844건, 16.1%)	자전거 (417건, 8.0%)
이물질(기타)	완구 (1,169건, 28.0%)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633건, 15.2%)	배터리, 전지 및 액세서리 (327건, 7.8%)
베임·찔림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1,430건, 34.7%)	수저 포크 및 나이프류 (367건, 8.9%)	메이크업 용품 (270건, 6.6%)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1,649건, 51.8%)	놀이터 시설 (167건, 5.2%)	완구 (138건, 4.3%)
이물질(플라스틱)	완구 (2,646건, 85.7%)	모조보석 제품 (66건, 2.1%)	일회용 주방용품 (52건, 1.7%)
고온 물질	주방 가전 (938건, 39.0%)	식기 접시 및 컵 (265건, 11.0%)	이미용 및 생활가전 (257건, 10.7%)

8. 위해부위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 '팔 및 손', '신체내부(장기, 혈관, 기도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머리 및 얼굴'의 경우 가구(침대, 소파, 의자 등)와 이동수단(키패드, 어린이 자전거 등)에서 낙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현황) '머리 및 얼굴' 9,444건(57.6%), '팔 및 손' 2,676건(16.3%), '신체 내부' 1,814건(11.1%) 등의 순으로 순위 변화가 없었음.

[표 11] 위해부위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머리 및 얼굴	10,783 (58.3)	9,519 (60.0)	12,754 (58.9)	13,032 (58.3)	9,444 (57.6)
팔 및 손	3,754 (20.3)	2,932 (18.5)	3,851 (17.8)	3,978 (17.8)	2,676 (16.3)
신체 내부 (장기, 혈관, 기도 등)	1,467 (7.9)	1,448 (9.1)	2,195 (10.1)	2,306 (10.3)	1,814 (11.1)
둔부·다리 및 발	1,384 (7.5)	1,065 (6.7)	1,436 (6.7)	1,577 (7.0)	1,269 (7.7)
전신 손상	489 (2.6)	364 (2.3)	685 (3.2)	736 (3.3)	574 (3.5)
몸통	251 (1.4)	205 (1.3)	331 (1.5)	361 (1.6)	318 (1.9)
목 및 어깨	289 (1.6)	253 (1.6)	349 (1.6)	338 (1.5)	290 (1.8)
기타·미상·해당 없음	77 (0.4)	85 (0.5)	41 (0.2)	43 (0.2)	24 (0.1)
합계	18,494 (100.0)	15,871 (100.0)	21,642 (100.0)	22,371 (100.0)	16,409 (100.0)

9. 위해증상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기타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세부적인 위해 증상으로 '열상(찢어짐)' 3,814건(23.3%), '타박상' 3,381건(20.6%), '체내 위험 이물질' 1,137건(6.9%), '골절' 1,171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2] 위해증상별 현황(5년)

(단위: 건, (%))

위해증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열상(찢어짐)	6,301	(34.1)	5,304	(33.4)	6,561	(30.3)	6,097	(27.2)	3,814	(23.3)
	찰과상	792	(4.3)	768	(4.8)	981	(4.5)	944	(4.2)	867	(5.3)
	부종 또는 피부 감각장애	266	(1.4)	318	(2.0)	361	(1.7)	559	(2.5)	595	(3.7)
	두드러기	368	(2.0)	231	(1.5)	481	(2.2)	518	(2.3)	358	(2.2)
	출혈 및 혈종	283	(1.5)	275	(1.7)	371	(1.7)	406	(1.8)	328	(2.0)

위해증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297	(1.6)	237	(1.5)	369	(1.7)	332	(1.5)	269	(1.7)
	절상(베임)	115	(0.6)	139	(0.9)	247	(1.1)	282	(1.3)	117	(0.7)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	132	(0.7)	152	(1.0)	218	(1.0)	281	(1.3)	82	(0.5)
	박리(벗겨짐)	48	(0.3)	29	(0.2)	37	(0.2)	32	(0.1)	40	(0.2)
	자상(찢림)	69	(0.4)	55	(0.3)	45	(0.2)	55	(0.2)	22	(0.1)
	가려움	9	(0.0)	7	(0.0)	22	(0.1)	11	(0.1)	8	(0.0)
	천공 및 관통상	13	(0.1)	13	(0.1)	11	(0.1)	11	(0.1)	5	(0.0)
	기타 피부 및 파괴조직 손상	20	(0.1)	29	(0.2)	58	(0.3)	130	(0.6)	41	(0.2)
		8,713	(47.1)	7,557	(47.6)	9,762	(45.1)	9,658	(43.2)	6,546	(39.9)
뇌진탕 및 타박상	타박상	3,139	(17.0)	2,241	(14.1)	3,577	(16.5)	4,277	(19.1)	3,381	(20.6)
	뇌진탕	794	(4.3)	1,035	(6.5)	1,437	(6.7)	1,509	(6.7)	1,400	(8.6)
		3,933	(21.3)	3,276	(20.6)	5,014	(23.2)	5,786	(25.8)	4,781	(29.2)
기타 손상	체내 위험 이물질	1,927	(10.4)	1,612	(10.2)	1,986	(9.2)	1,986	(8.9)	1,137	(6.9)
	구토	359	(1.9)	363	(2.3)	495	(2.3)	531	(2.4)	465	(2.8)
	알레르기	12	(0.1)	12	(0.1)	31	(0.1)	68	(0.3)	97	(0.6)
	두통	66	(0.4)	84	(0.5)	130	(0.6)	114	(0.5)	96	(0.6)
	어지러움, 이명, 메스꺼움	30	(0.2)	21	(0.1)	61	(0.3)	45	(0.2)	44	(0.3)
	설사	18	(0.1)	23	(0.1)	49	(0.2)	39	(0.2)	40	(0.2)
	오한 발열	21	(0.1)	21	(0.1)	87	(0.4)	29	(0.1)	25	(0.2)
	상세 미상의 위해증상	-	-	1	(0.0)	-	-	6	(0.0)	-	(0.0)
	위해증상 확인불가	-	-	2	(0.0)	1	(0.0)	4	(0.0)	2	(0.0)
		2,433	(13.2)	2,139	(13.4)	2,840	(13.1)	2,822	(12.6)	1,906	(11.6)
근육, 뼈 및 인대손상	골절	1,712	(9.3)	1,445	(9.1)	1,886	(8.7)	1,801	(8.0)	1,171	(7.2)
	탈구	170	(0.9)	143	(0.9)	211	(1.0)	227	(1.0)	316	(1.9)
	염좌	191	(1.0)	176	(1.1)	228	(1.1)	242	(1.1)	150	(0.9)
	파쇄(부서짐)	24	(0.1)	15	(0.1)	19	(0.1)	17	(0.1)	20	(0.1)
	절단	31	(0.2)	12	(0.1)	6	(0.0)	13	(0.1)	17	(0.1)
		2,128	(11.5)	1,791	(11.3)	2,350	(10.9)	2,300	(10.3)	1,674	(10.2)
신체내부 장기손상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94	(2.7)	551	(3.5)	814	(3.8)	984	(4.4)	818	(5.0)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6	(0.1)	13	(0.1)	44	(0.2)	44	(0.2)	37	(0.2)

위해증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	15 (0.1)	18 (0.1)	46 (0.2)	24 (0.1)	25 (0.2)
	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	- -	2 (0.0)	156 (0.7)	5 (0.0)	6 (0.0)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12 (0.1)	3 (0.0)	13 (0.1)	15 (0.1)	21 (0.1)
		537 (2.9)	587 (3.7)	1,073 (5.0)	1,072 (4.8)	907 (5.5)
화상	화상-뜨거운 액체나 증기	279 (1.5)	173 (1.1)	239 (1.1)	288 (1.3)	320 (2.0)
	화상-열에 의한	322 (1.7)	200 (1.3)	264 (1.2)	302 (1.4)	183 (1.1)
	화상-전기에 의한	22 (0.1)	14 (0.1)	21 (0.1)	16 (0.1)	16 (0.1)
	화상-화학물질	14 (0.1)	7 (0.0)	5 (0.0)	9 (0.0)	4 (0.0)
	화상-원인불명	- -	- -	- -	1 (0.0)	- (0.0)
		637 (3.4)	394 (2.5)	529 (2.4)	616 (2.8)	523 (3.2)
전산손상	중독(약물, 가스, 화학물질 등)	23 (0.1)	38 (0.2)	25 (0.1)	73 (0.3)	38 (0.2)
	전기충격 (감전사 포함)	6 (0.0)	5 (0.0)	3 (0.0)	3 (0.0)	4 (0.1)
	산소 결핍	1 (0.0)	- -	3 (0.0)	- (0.0)	4 (0.0)
	약수(약사 포함)	2 (0.0)	1 (0.0)	2 (0.0)	4 (0.0)	2 (0.0)
	식중독 (부패, 변질 음식)	7 (0.0)	- -	1 (0.0)	3 (0.0)	1 (0.0)
		39 (0.2)	44 (0.2)	34 (0.1)	83 (0.3)	49 (0.3)
해당없음		74 (0.4)	83 (0.5)	40 (0.2)	34 (0.2)	23 (0.1)
합계		18,494 (100.0)	15,871 (100.0)	21,642 (100.0)	22,371 (100.0)	16,409 (100.0)

□ (사망사고 사례) 2024년 사망사고로 접수된 피해정보는 없으며,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총 2건 접수됨.

[표 13] 사망사고 내용(5년)

추락	(4개월 여) 침대에서 떨어지며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함(2020. 6.)
이물질 (가스 및 기체류)	(만 13세 남)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질식으로 사망함(2022. 4.)

III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1. 영아기(0세)

§ 영아기 발달 특성

- 기본적인 반사운동과 감각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극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며, 목 가누기, 앉기 등 기본적인 대근육과 손 뻗기, 잡기, 쥐기 등의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짐.
- 뼈의 조직이 연골에서 점차 경골화되어 뼈가 단단해짐에 따라 점차 골격이 발달하고 내부 기관이 보호됨.

가. 위해장소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영아기 안전사고는' 주택에서 매년 87% 이상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어린이 발달단계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주택' 2,088건(87.8%), '숙박 및 음식점' 25건(1.1%), '도로 및 인도' 22건(0.9%) 순으로 나타남.
- 영아기의 경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활동 범위가 좁고 시간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으로 보임.

[표 14] 영아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택	1,582 (92.0)	1,496 (89.6)	2,132 (89.2)	2,585 (88.7)	2,088 (87.8)
숙박 및 음식점	15 (0.9)	18 (1.1)	19 (0.8)	35 (1.2)	25 (1.1)
도로 및 인도	24 (1.4)	22 (1.3)	31 (1.3)	40 (1.4)	22 (0.9)
쇼핑시설	5 (0.3)	-	12 (0.5)	15 (0.5)	20 (0.8)
의료서비스시설	11 (0.6)	11 (0.7)	21 (0.9)	15 (0.5)	15 (0.6)
기타 상업시설*	11 (0.6)	7 (0.4)	12 (0.5)	19 (0.7)	6 (0.3)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3 (0.2)	6 (0.4)	10 (0.4)	9 (0.3)	5 (0.2)
교통시설	2 (0.1)	-	2 (0.1)	5 (0.2)	5 (0.2)
교육시설	4 (0.2)	7 (0.4)	5 (0.2)	7 (0.2)	4 (0.2)
스포츠/레저시설	1 (0.1)	1 (0.1)	-	1 (0.0)	-
자연 및 관련시설	1 (0.1)	-	-	1 (0.0)	-
기타 및 미상	61 (3.5)	101 (6.1)	145 (6.1)	184 (6.3)	188 (7.9)
합계	1,720 (100.0)	1,669 (100.0)	2,389 (100.0)	2,916 (100.0)	2,378 (100.0)

* 주유소, 세차장,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나. 위해품목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품목은 '침실가구', '유아용 가구', '거실가구' 등의 순임
- (2024년 현황) 2024년에도 '침실가구' 990건(41.6%), '유아용 가구' 459건(19.3%), '거실가구' 146건(6.1%)으로 순위 변화는 없었음.
- 특히, '유아용 가구'의 비중(19.3%)이 전년(16.3%) 대비 증가했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주로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용 의자'에서 추락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5] 영아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중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침실가구	679 (39.5)	686 (41.1)	1,002 (41.9)	1,223 (41.9)	990 (41.6)
2	유아용 가구	127 (7.4)	162 (9.7)	326 (13.6)	476 (16.3)	459 (19.3)
3	거실가구	115 (6.7)	98 (5.9)	152 (6.4)	172 (5.9)	146 (6.1)
4	바닥재	114 (6.6)	119 (7.1)	121 (5.1)	126 (4.3)	78 (3.3)
5	유란류	40 (2.3)	50 (3.0)	73 (3.1)	94 (3.2)	72 (3.0)
6	유가공품	47 (2.7)	42 (2.5)	55 (2.3)	53 (1.8)	54 (2.3)
4	주방가구	43 (2.5)	36 (2.2)	69 (2.9)	73 (2.5)	49 (2.1)
8	주방 가전	39 (2.3)	31 (1.9)	28 (1.2)	48 (1.6)	48 (2.0)
9	의약품	12 (0.7)	17 (1.0)	24 (1.0)	31 (1.1)	43 (1.8)
10	기타 가구 및 가구 부품	21 (1.2)	24 (1.4)	42 (1.8)	52 (1.8)	37 (1.6)
11	특수용도식품	16 (0.9)	23 (1.4)	35 (1.5)	52 (1.8)	32 (1.3)
12	냉난방 및 계절가전	6 (0.3)	11 (0.7)	10 (0.4)	24 (0.8)	20 (0.8)
13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19 (1.1)	15 (0.9)	21 (0.9)	21 (0.7)	20 (0.8)
14	완구	45 (2.6)	32 (1.9)	46 (1.9)	26 (0.9)	18 (0.8)
15	식기, 접시 및 컵	21 (1.2)	14 (0.8)	23 (1.0)	17 (0.6)	18 (0.8)
16	이미용 및 생활가전	16 (0.9)	6 (0.4)	9 (0.4)	15 (0.5)	17 (0.7)
17	주방용구 및 용품	12 (0.7)	11 (0.7)	14 (0.6)	15 (0.5)	16 (0.7)
18	침구 및 매트	6 (0.3)	5 (0.3)	11 (0.5)	18 (0.6)	16 (0.7)
19	위생도기 및 욕실 가구	20 (1.2)	22 (1.3)	18 (0.8)	19 (0.7)	15 (0.6)
20	가정용 청소 및 세탁용품	10 (0.6)	5 (0.3)	7 (0.3)	14 (0.5)	13 (0.5)

다. 위해유형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유형은 '추락',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미끄러짐·넘어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2024년에도 '추락' 1,672건(70.3%),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220건(9.3%), '미끄러짐·넘어짐' 127건(5.3%)으로 순위 변화는 없었음.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의 경우 이유식으로 '달걀'이나 '분유'를 섭취한 후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 발생이 잦은 것으로 보임.

[표 16] 영아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소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추락	987 (57.4)	1,006 (60.3)	1,595 (66.8)	1,981 (67.9)	1,672 (70.3)
2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174 (10.1)	183 (11.0)	241 (10.1)	284 (9.7)	220 (9.3)
3	미끄러짐·넘어짐	139 (8.1)	141 (8.4)	155 (6.5)	180 (6.2)	127 (5.3)
4	이물질 삼킴/흡인	106 (6.2)	92 (5.5)	114 (4.8)	131 (4.5)	93 (3.9)
5	고온 물질	81 (4.7)	56 (3.4)	64 (2.7)	90 (3.1)	86 (3.6)
6	베임·찔림	51 (3.0)	33 (2.0)	40 (1.7)	57 (2.0)	33 (1.4)
4	눌림·끼임	74 (4.3)	45 (2.7)	60 (2.5)	49 (1.7)	31 (1.3)
8	약물 부작용	2 (0.1)	3 (0.2)	4 (0.2)	12 (0.4)	29 (1.2)
9	부딪힘	41 (2.4)	40 (2.4)	39 (1.6)	30 (1.0)	23 (1.0)
10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20 (1.2)	15 (0.9)	30 (1.3)	42 (1.4)	20 (0.8)

※ [참고] 영아기 상위 5개 위해유형별 주요 원인품목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1	추락	침대, 소파, 기저귀 교환대 등
2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달걀, 분유류, 이유식 등
3	미끄러짐·넘어짐	목재마루재, 바닥재, 침대, 욕조 등
4	이물질 삼킴/흡인	스티커, 전지, 자석류, 비닐 랩 등
5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가습기 등

라. 위해증상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증상은 ‘뇌진탕 및 타박상’과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침대·소파에서 추락해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는 사례가 대다수임.

[표 17] 영아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뇌진탕 및 타박상	824 (47.9)	765 (45.8)	1,253 (52.5)	1,623 (55.6)	1,280 (53.8)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535 (31.1)	548 (32.8)	686 (28.7)	778 (26.7)	644 (27.1)
화상	84 (4.9)	58 (3.5)	66 (2.8)	94 (3.2)	90 (3.8)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9 (4.0)	67 (4.0)	99 (4.1)	98 (3.4)	86 (3.6)
신체내부 장기손상	18 (1.1)	10 (3.1)	21 (0.9)	35 (1.2)	36 (1.5)
전신손상	4 (0.2)	3 (0.6)	3 (0.1)	6 (0.2)	7 (0.3)
기타 손상*	168 (9.8)	166 (9.9)	239 (10.0)	274 (9.4)	227 (9.6)
해당없음	18 (1.1)	52 (0.2)	22 (0.9)	8 (0.3)	8 (0.3)
합계	1,720 (100.0)	1,669 (100.0)	2,389 (100.0)	2,916 (100.0)	2,378 (100.0)

* 체내 위험 이물질, 구토, 알레르기,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

마. 2024년 주요 접수 사례

- (추락 사고) 2024년 2월 자택 침대에서 아기가 떨어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 진단을 받음. (만 0세, 남)
- (미끄러짐·넘어짐) 2024년 1월 자택 거실에서 넘어지면서 탁자에 눈을 부딪혀 발생한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0세, 남)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2024년 9월 자택에서 계란 흰자를 처음 먹은 후 발생한 전신의 피부발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0세, 여)

2. 걸음마기(1~3세)

§ 걸음마기 발달 특성

- 영아기보다 뛰기, 계단 오르기 등 운동능력이 향상되고 신장에서 머리의 비중이 점점 작아져 신체균형이 발달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며, 분류능력의 발달로 단순한 사물을 분류할 수 있고, 자아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함.

가. 위해장소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걸음마기' 안전사고는 매년 75%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어 '도로 및 인도',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8] 걸음마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단위: 건, (%))

발생장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택	6,507 (82.0)	5,273 (81.3)	6,422 (78.0)	6,377 (77.4)	4,398 (75.9)
도로 및 인도	256 (3.2)	226 (3.5)	240 (2.9)	224 (2.7)	198 (3.4)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216 (2.7)	160 (2.5)	239 (2.9)	281 (3.4)	195 (3.4)
교육시설	145 (1.8)	164 (2.5)	246 (3.0)	273 (3.4)	166 (2.9)
숙박 및 음식점	173 (2.2)	125 (1.9)	205 (2.5)	221 (2.7)	151 (2.6)
쇼핑시설	63 (0.8)	39 (0.6)	52 (0.6)	73 (0.9)	60 (1.0)
의료서비스시설	21 (0.3)	34 (0.5)	64 (0.8)	27 (0.3)	31 (0.5)
스포츠/레저시설	34 (0.4)	25 (0.4)	47 (0.6)	58 (0.7)	22 (0.4)
기타 상업시설*	28 (0.4)	16 (0.2)	31 (0.4)	34 (0.4)	21 (0.4)
교통시설	18 (0.2)	9 (0.1)	25 (0.3)	40 (0.5)	15 (0.3)
종교 및 문화시설	4 (0.1)	-	6 (0.1)	7 (0.1)	5 (0.1)
자연 및 관련시설	15 (0.2)	3 (0.0)	7 (0.1)	3 (0.0)	2 (0.0)
농·수·축산업지역	1 (0.0)	-	3 (0.0)	1 (0.0)	2 (0.0)
공공시설	-	-	-	2 (0.0)	2 (0.0)
복지및노인요양시설	1 (0.0)	2 (0.0)	4 (0.0)	4 (0.0)	1 (0.0)
기타 및 미상	451 (5.7)	409 (6.3)	644 (7.8)	615 (7.5)	527 (9.1)
합계	7,933 (100.0)	6,485 (100.0)	8,235 (100.0)	8,240 (100.0)	5,796 (100.0)

* 주유소, 세차장,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나. 위해품목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품목별 현황은 '바닥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완구', '침실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바닥재', '침실가구', '유아용 가구' 등의 순으로, 2024년 '유아용 가구'가 상위 세 번째를 차지함.
- 특히, '침실 가구'의 비중이 매년 상승하는데, 주로 침대, 서랍장 등에서 추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9] 걸음마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중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바닥재	1,647 (20.8)	1,345 (20.7)	1,562 (19.0)	1,330 (16.1)	898 (15.5)
2	침실가구	529 (6.7)	461 (7.1)	636 (7.7)	769 (9.3)	668 (11.5)
3	유아용 가구	274 (3.5)	299 (4.6)	375 (4.6)	451 (5.5)	449 (7.7)
4	완구	742 (9.4)	574 (8.9)	749 (9.1)	648 (7.9)	388 (6.7)
5	거실가구	310 (3.9)	268 (4.1)	316 (3.8)	353 (4.3)	310 (5.3)
6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224 (2.8)	210 (3.2)	262 (3.2)	248 (3.0)	180 (3.1)
7	문	481 (6.1)	338 (5.2)	347 (4.2)	376 (4.6)	193 (3.3)
8	주방가구	220 (2.8)	180 (2.8)	258 (3.1)	264 (3.2)	192 (3.3)
9	놀이터 시설	307 (3.9)	264 (4.1)	362 (4.4)	379 (4.6)	215 (3.7)
10	주방 가전	201 (2.5)	145 (2.2)	174 (2.1)	199 (2.4)	171 (3.0)
11	기타가구 및 가구부품	139 (1.8)	161 (2.5)	142 (1.7)	175 (2.1)	141 (2.4)
12	의약품	56 (0.5)	55 (0.5)	110 (1.3)	130 (1.6)	112 (1.9)
13	기타 승용물	134 (1.7)	101 (1.6)	138 (1.7)	130 (1.6)	96 (1.7)
14	여행 문화 놀이 시설 및 서비스	96 (1.2)	70 (1.1)	109 (1.3)	117 (1.4)	90 (1.6)
15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166 (2.1)	116 (1.8)	184 (2.2)	152 (1.8)	85 (1.5)
16	위생도기 및 욕실가구	135 (1.7)	140 (2.2)	158 (1.9)	131 (1.6)	84 (1.4)
17	학생용 및 서재용 가구	126 (1.6)	71 (1.1)	103 (1.3)	105 (1.3)	81 (1.4)
18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68 (0.9)	64 (1.0)	105 (1.3)	123 (1.5)	59 (1.0)
19	자전거	79 (1.0)	65 (1.0)	56 (0.7)	74 (0.9)	54 (0.9)
20	냉난방 및 계절가전	45 (0.6)	41 (0.6)	44 (0.5)	47 (0.6)	53 (0.9)

다. 위해유형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걸음마기’의 위해유형별 현황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이물질 삼킴/흡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추락’, ‘미끄러짐·넘어짐’, ‘이물질 삼킴/흡인’ 순으로, 2024년 ‘추락’이 상위 첫 번째를 차지함.
- 특히, ‘추락’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31.9%(1,848건)로 30%를 넘어서 주요 품목(침대, 소파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0] 걸음마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소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추락	1,730 (21.8)	1,483 (22.9)	1,978 (24.0)	2,127 (25.8)	1,848 (31.9)
2	미끄러짐·넘어짐	2,412 (30.4)	2,043 (31.5)	2,464 (29.9)	2,376 (28.8)	1,658 (28.6)
3	이물질 삼킴/흡인	1,156 (14.6)	921 (14.2)	1,155 (14.0)	1,089 (13.2)	605 (10.4)
4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412 (5.2)	376 (5.8)	631 (7.7)	534 (6.5)	434 (7.5)
5	놀림·끼임	651 (8.2)	492 (7.6)	542 (6.6)	617 (7.5)	310 (5.3)
6	고온물질	326 (4.1)	204 (3.1)	264 (3.2)	320 (3.9)	265 (4.6)
4	부딪힘	537 (6.8)	442 (6.8)	517 (6.3)	472 (5.7)	230 (4.0)
8	베임·찔림	415 (5.2)	263 (4.1)	340 (4.1)	332 (4.0)	162 (2.8)
9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128 (1.6)	116 (1.8)	124 (1.5)	123 (1.5)	82 (1.4)
10	약물 부작용	14 (0.2)	14 (0.2)	36 (0.4)	51 (0.6)	59 (1.0)

※ [참고] 걸음마기 상위 5개 위해유형별 주요 원인품목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1	추락	침대, 소파, 식탁용 의자 등
2	미끄러짐·넘어짐	목재마루재, 키펠, 놀이방, 욕조 등
3	이물질 삼킴/흡인	구슬, 동전, 자석류, 조립용 블록 등
4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달걀, 조리식품, 우유류, 빵 등
5	놀림·끼임	문, 승용물, 엘리베이터, 냉장고 등

라. 위해증상별 현황

- (일반 현황)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449건(42.2%), ‘뇌진탕 및 타박상’ 1,631건(28.1%), ‘기타 손상’ 898(15.5%) 순으로 매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 특히 ‘걸음마기’의 경우 주변 사물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인해 ‘기타 손상’과 ‘화상’이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기타 손상’의 경우 주로 구슬, 점토, 자석 등을 콧구멍과 입에 넣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화상’은 전기밥솥, 정수기, 가습기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보호자들의 주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1] 걸음마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4,077 (51.4)	3,416 (52.7)	4,068 (49.4)	3,906 (47.4)	2,449 (42.2)
뇌진탕 및 타박상	1,512 (19.1)	1,192 (18.4)	1,669 (20.3)	1,942 (23.6)	1,631 (28.1)
기타 손상*	1,328 (16.7)	1,101 (17.0)	1,454 (17.7)	1,327 (16.1)	898 (15.5)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35 (6.7)	393 (6.1)	533 (6.5)	474 (5.8)	348 (6.0)
화상	364 (4.6)	221 (3.4)	298 (3.6)	337 (4.1)	288 (5.0)
신체내부 장기손상	77 (1.0)	116 (1.8)	186 (2.2)	191 (2.3)	149 (2.6)
전신손상	22 (0.3)	30 (0.5)	17 (0.2)	52 (0.6)	29 (0.5)
해당없음	18 (0.2)	16 (0.2)	10 (0.1)	11 (0.1)	4 (0.1)
합계	7,933 (100.0)	6,485 (100.0)	8,235 (100.0)	8,240 (100.0)	5,796 (100.0)

* 체내 위험 이물질, 구토, 알레르기,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

마. 2024년 주요 접수 사례

- (미끄러짐·넘어짐) 2024년 1월 거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유리 조각에 안와를 찔려 눈 열상 수상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세, 남)
- (추락 사고) 2024년 7월 칫솔을 문 채로 거실 소파에서 떨어져 발생한 입술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3세, 남)

3. 유아기[4~6세]

§ 유아기 발달 특성

-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서 움직임이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지며, 소근육 조절 능력이 발달하여 양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즐기고 유치원, 놀이터, 키즈카페 등 외부활동이 증가함.
- 구체적 사물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아도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행동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함.

가. 위해장소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유아기' 안전사고는 '주택'에서 매년 56% 이상 발생하며 가장 높았고, '도로 및 인도,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기'의 경우 '걸음마기' 보다 '주택' 비중이 감소하고, '여가·문화 및 놀이 시설, '도로 및 인도' 등 외부장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유아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단위: 건, (%))

발생장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택	2,932 (66.1)	2,599 (67.5)	3,033 (62.9)	2,862 (61.4)	1,731 (56.8)
도로 및 인도	425 (9.6)	307 (8.0)	360 (7.5)	312 (6.7)	294 (9.5)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291 (6.6)	197 (5.1)	298 (6.2)	359 (7.7)	228 (7.5)
교육시설	165 (3.7)	160 (4.2)	293 (6.1)	269 (5.8)	176 (5.8)
숙박 및 음식점	108 (2.4)	83 (2.2)	147 (3.0)	174 (3.7)	119 (3.9)
스포츠/레저시설	64 (1.4)	43 (1.1)	112 (2.3)	115 (2.5)	58 (1.9)
쇼핑시설	23 (0.5)	24 (0.6)	24 (0.5)	35 (0.8)	22 (0.7)
의료서비스시설	23 (0.5)	9 (0.2)	35 (0.7)	14 (0.3)	12 (0.4)
교통시설	7 (0.2)	6 (0.2)	11 (0.2)	16 (0.3)	9 (0.3)
기타 상업시설*	13 (0.3)	16 (0.4)	26 (0.6)	22 (0.5)	9 (0.3)
종교 및 문화시설	7 (0.2)	1 (0.0)	5 (0.1)	13 (0.3)	8 (0.3)
자연 및 관련시설	9 (0.2)	8 (0.2)	6 (0.1)	5 (0.1)	3 (0.1)
공공시설	- -	3 (0.1)	1 (0.0)	1 (0.0)	2 (0.1)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 (0.0)	3 (0.1)	- -	3 (0.1)	2 (0.1)
농·수축산업지역	5 (0.1)	1 (0.0)	- -	1 (0.0)	- -
기타 및 미상	365 (8.2)	390 (10.1)	471 (9.8)	460 (9.8)	375 (12.3)
합계	4,438 (100.0)	3,850 (100.0)	4,822 (100.0)	4,661 (100.0)	3,048 (100.0)

* 주유소, 세차장,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나. 위해품목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 품목은 '바닥재'가 가장 많았으며, '놀이터 시설',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완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놀이터 시설', '바닥재',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등의 순으로, 2024년 '놀이터 시설'이 상위 첫 번째를 차지함.
- '유아기'의 경우 '놀이터 시설',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자전거' 등의 외부활동과 관련된 품목의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23] 유아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중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놀이터 시설	418 (9.4)	448 (11.6)	605 (12.5)	528 (11.3)	363 (11.9)
2	바닥재	699 (15.8)	612 (15.9)	662 (13.7)	570 (12.2)	362 (11.9)
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505 (11.4)	410 (10.6)	422 (8.8)	390 (8.4)	307 (10.1)
4	완구	394 (8.9)	357 (9.3)	393 (8.2)	404 (8.7)	195 (6.4)
5	침실가구	242 (5.5)	191 (5.0)	243 (5.0)	242 (5.2)	184 (6.0)
6	문	223 (5.0)	160 (4.2)	197 (4.1)	174 (3.7)	119 (3.9)
7	자전거	155 (3.5)	112 (2.9)	110 (2.3)	143 (3.1)	102 (3.3)
8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94 (2.1)	83 (2.2)	123 (2.6)	161 (3.5)	98 (3.2)
9	거실가구	120 (2.7)	80 (2.1)	100 (2.1)	111 (2.4)	82 (2.7)
10	유아용 가구	60 (1.4)	64 (1.7)	83 (1.7)	113 (2.4)	74 (2.4)
11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68 (1.5)	73 (1.9)	104 (2.2)	102 (2.2)	63 (2.1)
12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113 (2.6)	106 (2.8)	135 (2.8)	141 (3.0)	63 (2.1)
13	의약품	28 (0.6)	16 (0.4)	46 (1.0)	79 (1.7)	52 (1.7)
14	기타 승용물	99 (2.2)	84 (2.2)	115 (2.4)	79 (1.7)	49 (1.6)
15	주방가구	55 (1.2)	53 (1.4)	53 (1.1)	67 (1.4)	49 (1.6)
16	위생도기 및 욕실가구	93 (2.1)	95 (2.5)	126 (2.6)	70 (1.5)	47 (1.5)
17	기타가구 및 가구부품	55 (1.2)	50 (1.3)	54 (1.1)	60 (1.3)	42 (1.4)
18	기타 스포츠 장비 및 용품	40 (0.9)	40 (1.0)	56 (1.2)	40 (0.9)	33 (1.1)
19	분식	13 (0.3)	23 (0.6)	42 (0.9)	37 (0.8)	30 (1.0)
20	배달음식	15 (0.3)	23 (0.6)	30 (0.6)	22 (0.5)	25 (0.8)

다. 위해유형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유아기’의 위해유형별 현황은 ‘미끄러짐·넘어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추락’, ‘이물질 삼킴/흡인’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순으로,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에 상위 세 번째를 차지함.
- 주로 치킨, 조리식품, 우유 등을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표 24] 유아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소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미끄러짐·넘어짐	1,682 (37.9)	1,451 (37.7)	1,709 (35.4)	1,644 (35.3)	1,145 (37.6)
2	추락	857 (19.3)	762 (19.8)	935 (19.4)	909 (19.5)	669 (21.9)
3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223 (5.0)	223 (5.8)	393 (8.2)	419 (9.0)	320 (10.5)
4	이물질 삼킴/흡인	543 (12.2)	488 (12.7)	547 (11.3)	569 (12.2)	275 (9.0)
5	부딪힘	356 (8.0)	317 (8.2)	443 (9.2)	338 (7.3)	178 (5.8)
6	눌림·끼임	328 (7.4)	246 (6.4)	313 (6.5)	282 (6.1)	160 (5.2)
4	베임·찔림	185 (4.2)	159 (4.1)	202 (4.2)	187 (4.0)	93 (3.1)
8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74 (1.7)	57 (1.5)	97 (2.0)	99 (2.1)	54 (1.8)
9	고온물질	74 (1.7)	53 (1.4)	54 (1.1)	60 (1.3)	47 (1.5)
10	약물 부작용	10 (0.2)	10 (0.3)	23 (0.5)	65 (1.4)	42 (1.4)

※ [참고] 유아기 상위 5개 위해유형별 주요 원인품목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1	미끄러짐·넘어짐	킥보드, 바닥재, 어린이 자전거 등
2	추락	침대, 소파, 놀이터용 그네 등
3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치킨, 조리식품, 김밥, 우유류 등
4	이물질 삼킴/흡인	구슬, 조립용 블록, 자석류 등
5	부딪힘	문, 놀이터용 미끄럼틀, 승용물 등

라. 위해증상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증상별 현황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기타 손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 유아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69 (48.9)	1,853 (48.1)	2,395 (49.7)	2,174 (46.6)	1,323 (43.4)
뇌진탕 및 타박상	855 (19.3)	688 (17.9)	896 (18.6)	902 (19.4)	684 (22.5)
기타 손상*	633 (14.2)	581 (15.1)	666 (13.8)	702 (15.1)	395 (13.0)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76 (13.0)	524 (13.6)	562 (11.6)	556 (11.9)	373 (12.2)
신체내부 장기손상	101 (2.3)	137 (3.6)	225 (4.7)	240 (5.1)	205 (6.7)
화상	87 (1.9)	60 (1.6)	68 (1.4)	71 (1.5)	59 (1.9)
전신손상	4 (0.1)	3 (0.1)	5 (0.1)	12 (0.3)	7 (0.2)
해당없음	13 (0.3)	4 (0.1)	5 (0.1)	4 (0.1)	2 (0.1)
합계	4,438 (100.0)	3,850 (100.0)	4,822 (100.0)	4,661 (100.0)	3,048 (100.0)

* 체내 위험 이물질, 구토, 알레르기,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

마. 2024년 주요 접수 사례

- (미끄러짐·넘어짐) 2024년 7월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팔로 바닥을 짚은 후 우측 팔 변형 및 탈구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5세, 여)
- (추락 사고) 2024년 8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5세, 남)

4. 학령기(7~14세)

§ 학령기 발달 특성

-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며 뼈와 근육의 발달로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신체의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함.
- 집단놀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함.

가. 위해장소별 현황

- (일반 현황) '학령기' 안전사고 또한, 매년 35% 이상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뒤이어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동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어린이 발달단계 중 '주택'의 비중이 가장 낮음.
- (2024년 현황) '주택',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등의 순으로 순위의 변화 없었음.
- '도로 및 인도'의 비중(20.0%)이 전년(11.5%) 대비 2배가량 증가함.

[표 26] 학령기 위해장소별 현황(5년)

(단위: 건, (%))

발생장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택	2,197 (49.9)	1,918 (49.6)	2,632 (42.5)	2,739 (41.8)	1,832 (35.4)
도로 및 인도	823 (18.7)	648 (16.8)	967 (15.6)	754 (11.5)	1,039 (20.0)
교육시설	199 (4.5)	205 (5.3)	583 (9.4)	796 (12.1)	487 (9.4)
스포츠/레저시설	241 (5.5)	200 (5.2)	482 (7.8)	608 (9.3)	356 (6.9)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278 (6.3)	240 (6.2)	391 (6.3)	399 (6.1)	279 (5.4)
숙박 및 음식점	177 (4.0)	126 (3.3)	195 (3.1)	291 (4.4)	269 (5.2)
의료서비스시설	15 (0.4)	12 (0.3)	268 (4.3)	38 (0.6)	27 (0.5)
기타 상업시설*	24 (0.6)	16 (0.4)	29 (0.5)	28 (0.4)	21 (0.4)
쇼핑시설	19 (0.4)	5 (0.1)	22 (0.4)	25 (0.4)	18 (0.3)
자연 및 관련시설	8 (0.2)	18 (0.5)	9 (0.1)	5 (0.1)	17 (0.3)
교통시설	5 (0.1)	2 (0.1)	17 (0.3)	15 (0.2)	9 (0.2)
종교 및 문화시설	1 (0.0)	-	7 (0.1)	18 (0.3)	4 (0.1)
공공시설	-	-	1 (0.0)	2 (0.0)	2 (0.0)
농·수·축산업지역	1 (0.0)	2 (0.1)	2 (0.1)	1 (0.0)	-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 (0.0)	3 (0.1)	1 (0.0)	5 (0.1)	-
기타 및 미상	414 (9.4)	472 (12.2)	590 (9.5)	830 (12.7)	827 (15.9)
합계	4,403 (100.0)	3,867 (100.0)	6,196 (100.0)	6,554 (100.0)	5,187 (100.0)

* 주유소, 세차장, 편의점, 제과점, 아·미용실 등

나. 위해품목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품목 현황은 '자전거'가 가장 많았고, '놀이터 시설',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령기' 안전사고 위해품목의 경우 학령기 발달 특성상 이전 시기보다 실외품목이 더해져 '자전거', '놀이터 시설', '운동 장비' 등이 상위품목을 차지함.
- (2024년 현황) '자전거', '놀이터 시설', '바닥재' 순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 특히, '자전거' 관련 접수 건수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함.

[표 27] 학령기 상위 20개 위해다발품목(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중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자전거	633 (14.4)	623 (16.1)	830 (13.4)	727 (11.1)	1,158 (22.3)
2	놀이터 시설	494 (11.2)	467 (12.1)	755 (12.2)	776 (11.8)	593 (11.4)
3	바닥재	295 (6.7)	277 (7.2)	372 (6.0)	399 (6.1)	305 (5.9)
4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152 (3.5)	187 (4.8)	436 (7.0)	626 (9.6)	273 (5.3)
5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345 (7.8)	245 (6.3)	318 (5.1)	266 (4.1)	256 (4.9)
6	기타 스포츠 장비 및 용품	232 (5.3)	191 (4.9)	298 (4.8)	296 (4.5)	215 (4.1)
7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57 (1.3)	47 (1.2)	125 (2.0)	158 (2.4)	133 (2.6)
8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168 (3.8)	115 (3.0)	221 (3.6)	291 (4.4)	118 (2.3)
9	문	157 (3.6)	114 (2.9)	196 (3.2)	193 (2.9)	112 (2.2)
10	의약품	38 (0.9)	28 (0.7)	321 (5.2)	122 (1.9)	97 (1.9)
11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86 (2.0)	76 (2.0)	117 (1.9)	156 (2.4)	96 (1.9)
12	침실가구	90 (2.0)	82 (2.1)	107 (1.7)	97 (1.5)	94 (1.8)
13	한식	38 (0.9)	29 (0.7)	50 (0.8)	71 (1.1)	75 (1.4)
14	겨울 스포츠용 장비	76 (1.7)	31 (0.8)	80 (1.3)	104 (1.6)	71 (1.4)
15	스포츠 레저시설 및 서비스	41 (0.9)	47 (1.2)	94 (1.5)	111 (1.7)	71 (1.4)
16	분식	54 (1.2)	49 (1.3)	72 (1.2)	68 (1.0)	69 (1.3)
17	완구	117 (2.7)	114 (2.9)	128 (2.1)	147 (2.2)	66 (1.3)
18	면류	37 (0.8)	28 (0.7)	56 (0.9)	58 (0.9)	60 (1.2)
19	양식	37 (0.8)	33 (0.9)	50 (0.8)	78 (1.2)	58 (1.1)
20	기타 승용물	75 (1.7)	64 (1.7)	121 (2.0)	99 (1.5)	57 (1.1)

다. 위해유형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유형별 안전사고는 '미끄러짐·넘어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추락'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현황) '미끄러짐·넘어짐',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추락' 등의 순으로, 순위의 변화가 없었음.
- '학령기'의 특성상 뼈와 근육의 발달로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자전거', '킥보드', '그네', '철봉' 등의 놀이기구 관련 안전사고 비중이 증가함.

[표 28] 학령기 상위 10개 위해다발유형(5년)

(단위: 건, (%))

순위	구분(소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미끄러짐·넘어짐	1,736 (39.4)	1,520 (39.3)	2,219 (35.8)	2,264 (34.5)	2,287 (44.1)
2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519 (11.8)	462 (11.9)	713 (11.5)	877 (13.4)	772 (14.9)
3	추락	570 (12.9)	499 (12.9)	766 (12.4)	779 (11.9)	657 (12.7)
4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205 (4.7)	267 (6.9)	552 (8.9)	742 (11.3)	338 (6.5)
5	부딪힘	288 (6.5)	267 (6.9)	471 (7.6)	432 (6.6)	266 (5.1)
6	베임·찔림	310 (7.0)	244 (6.3)	360 (5.8)	444 (6.8)	207 (4.0)
4	눌림·끼임	221 (5.0)	156 (4.0)	253 (4.1)	250 (3.8)	162 (3.1)
8	이물질 삼킴/흡인	206 (4.7)	211 (5.5)	275 (4.4)	312 (4.8)	156 (3.0)
9	파열·파손·꺾여짐	125 (2.8)	87 (2.2)	107 (1.7)	117 (1.8)	85 (1.6)
10	약물 부작용	25 (0.6)	17 (0.4)	43 (0.7)	91 (1.4)	78 (1.5)

※ [참고] 학령기 상위 5개 위해유형별 주요 원인품목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1	미끄러짐·넘어짐	어린이 자전거, 킥보드, 바닥재 등
2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치킨, 조리식품, 유탕면, 고기류 등
3	추락	놀이터용 미끄럼틀, 철봉, 그네 등
4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축구공, 야구공, 농구공, 어린이 자전거 등
5	부딪힘	문, 철봉, 어린이 자전거, 미끄럼틀 등

라. 위해증상별 현황

-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등의 순으로, 매년 유사한 추이로 나타남.
- 특히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비율이 모든 발달단계 중 가장 높은데, 주로 놀이터 시설에서 추락하거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많았음.

[표 29] 학령기 위해증상별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932 (43.9)	1,740 (45.0)	2,613 (42.2)	2,800 (42.7)	2,130 (41.1)
뇌진탕 및 타박상	742 (16.9)	631 (16.3)	1,196 (19.3)	1,319 (20.1)	1,186 (22.8)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948 (21.5)	807 (20.9)	1,156 (18.7)	1,172 (17.9)	867 (16.7)
신체내부 장기손상	341 (7.7)	324 (8.4)	641 (10.3)	606 (9.3)	517 (10.0)
기타 손상*	304 (6.9)	291 (7.5)	481 (7.8)	519 (7.9)	386 (7.4)
화상	102 (2.3)	55 (1.4)	97 (1.6)	114 (1.7)	86 (1.7)
전신손상	9 (0.2)	8 (0.2)	9 (0.1)	13 (0.2)	6 (0.1)
해당없음	25 (0.6)	11 (0.3)	3 (0.0)	11 (0.2)	9 (0.2)
합계	4,403 (100.0)	3,867 (100.0)	6,196 (100.0)	6,554 (100.0)	5,187 (100.0)

* 체내 위험 이물질, 구토, 알레르기,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

마. 2024년 주요 접수 사례

- **(미끄러짐 넘어짐)** 2024년 4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발생한 좌측 쇄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3세, 남)
- **(충돌 추돌 등 물리적충격)** 2024년 10월 축구장에서 날아오는 축구공에 얼굴을 맞은 뒤 코피와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1세, 여)

5. 발달단계별 비교

가. 발달단계별 인구 천 명당 위해정보 접수현황(2024년)

- 발달단계별 인구 천 명당 위해정보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아기(0세)’ 10.3건, ‘걸음마기(1~3세)’ 7.5건, ‘유아기(4~6세)’ 3.2건, ‘학령기(7~14세)’ 1.4건으로 나타남.
- 출생률 저하로 어린이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발달단계별 연앙인구 또한 낮아졌으나, 인구 천 명당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오히려 ‘영아기’, ‘걸음마기’가 ‘유아기’와 ‘학령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0] 발달단계별 인구 천 명당 위해정보 접수현황(2024년)

(단위 : 건, (%))

구분	2023년			2024년			
	건수	비율	인구 천명당 접수 건수**	건수	비율	발달단계별 연앙인구*	인구 천명당 접수 건수**
영아기(0세)	2,916	(13.0)	12.4	2,378	(14.5)	230,638	10.3
걸음마기(1~3세)	8,240	(36.8)	10.0	5,796	(35.3)	777,761	7.5
유아기(4~6세)	4,661	(20.9)	4.4	3,048	(18.6)	965,446	3.2
학령기(7~14세)	6,554	(29.3)	1.8	5,187	(31.6)	3,585,856.5	1.4
총계	22,371	100.0	3.9	16,409	100.0	5,559,701.5	3.0

*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구수이며, 그 연도를 대표함.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연앙인구를 작성함.

나. 발달단계별 세부 항목(장소·품목·유형) 현황(5년)

1)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장소 현황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내 위해발생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숙박 및 음식점' 등 주택 이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31]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장소(5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주택	9,883	(89.3)	28,977	(79.0)	13,157	(63.2)	11,318 (43.2)
도로 및 인도	139	(1.3)	1,144	(3.1)	1,698	(8.2)	4,231 (16.1)
교육시설	27	(0.2)	994	(2.7)	1,063	(5.1)	2,270 (8.7)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33	(0.3)	1,091	(3.0)	1,373	(6.6)	1,587 (6.1)
숙박 및 음식점	112	(1.0)	875	(2.4)	631	(3.0)	1,058 (4.0)
스포츠/레저시설	3	(0.0)	186	(0.5)	392	(1.9)	1,887 (7.2)

2)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품목 현황

- 발달단계별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으로 '영아기'는 '침실가구' 4,580건(41.4%), '걸음마기'와 '유아기'는 '바닥재'가 각각 6,782건(18.5%), 2,905건(14.0%), '학령기'에서는 '자전거'가 3,971건(15.2%)으로 나타남.

- '영아기'와 '걸음마기'는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가구', '바닥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유아기'와 '학령기'는 '놀이터 시설', '자전거' 등 야외활동의 증가로 실외사용 품목의 사고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 '걸음마기' 이전(0~3세)의 경우 독립적인 움직임이 어려우므로 주위 환경에 따른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린이의 행동적 특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표 32]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품목(중분류) 현황(5년)

(단위 : 건, %)

순위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
1	침실가구 (4,580건 41.4%)	바닥재 (6,782건 18.5%)	바닥재 (2,905건 14.0%)	자전거 (3,971건 15.2%)
2	유아용 가구 (1,550건 14.0%)	완구 (3,101건 8.5%)	놀이터 시설 (2,362건 11.3%)	놀이터 시설 (3,085건 11.8%)
3	거실가구 (683건 6.2%)	침실가구 (3,063건 8.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2,034건 9.8%)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1,674건 6.4%)
4	바닥재 (558건 5.0%)	유아용 가구 (1,848건 5.0%)	완구 (1,743건 8.4%)	바닥재 (1,649건 6.3%)
5	유란류 (329건 3.0%)	문 (1,735건 4.7%)	침실가구 (1,102건 5.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430건 5.5%)
6	주방가구 (270건 2.4%)	거실 가구 (1,557건 4.2%)	문 (873건 4.2%)	기타 스포츠 장비 및 용품 (1,232건 4.7%)
7	유가공품 (251건 2.3%)	놀이터 시설 (1,527건 4.2%)	자전거 (622건 3.0%)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913건 3.5%)
8	주방가전 (194건 1.8%)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124건 3.1%)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559건 2.7%)	문 (772건 2.9%)
9	기타가구 및 가구부품 (176건 1.6%)	주방가구 (1,114건 3.0%)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558건 2.7%)	의약품 (606건 2.3%)
10	완구 (167건 1.5%)	주방 가전 (890건 2.4%)	거실가구 (493건 2.4%)	완구 (572건 2.2%)

3)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유형 현황

- ☐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사고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비중이 높아졌고 ‘추락’ 사고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물질 삼킴/흡인’은 ‘유아기’까지 상위권을 차지하다가, ‘학령기’에서 순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유형의 ‘물구슬’, ‘워터비즈’, ‘수정토’ 등 물과 닿으면 팽창하는 구슬을 삼키는 새로운 안전사고 유형이 나타남.

[표 33]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유형(5년)

(단위 : 건, %)

순위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
1	추락 (7,241건, 65.4%)	미끄러짐·넘어짐 (10,953건, 29.9%)	미끄러짐·넘어짐 (7,631건, 36.7%)	미끄러짐·넘어짐 (10,026건, 38.3%)
2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1,102건, 10.0%)	추락 (9,166건, 25.0%)	추락 (4,132건, 19.8%)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3,343건, 12.8%)
3	미끄러짐·넘어짐 (742건, 6.7%)	이물질 삼킴/흡인 (4,926건, 13.4%)	이물질 삼킴/흡인 (2,422건, 11.6%)	추락 (3,271건, 12.5%)
4	이물질 삼킴/흡인 (536건, 4.8%)	놀림·끼임 (2,612건, 7.1%)	부딪힘 (1,632건, 7.8%)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2,104건, 8.1%)
5	고온 물질 (377건, 3.4%)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2,387건, 6.5%)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1,578건, 7.6%)	부딪힘 (1,724건, 6.6%)
6	놀림·끼임 (259건, 2.3%)	부딪힘 (2,198건, 6.0%)	놀림·끼임 (1,329건, 6.4%)	베임·찔림 (1,565건, 6.0%)
7	베임·찔림 (214건, 1.9%)	베임·찔림 (1,512건, 4.1%)	베임·찔림 (826건, 4.0%)	이물질 삼킴/흡인 (1,160건, 4.4%)
8	부딪힘 (173건, 1.6%)	고온 물질 (1,379건, 3.8%)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381건, 1.8%)	놀림·끼임 (1,042건, 4.0%)
9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127건, 1.1%)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573건, 1.6%)	고온 물질 (288건, 1.4%)	파열·파손·꺾여짐 (521건, 2.0%)
10	기타 의사사술 및 약물 (59건, 0.5%)	파열·파손·꺾여짐 (280건, 0.8%)	파열·파손·꺾여짐 (174건, 0.8%)	고온 물질 (359건, 1.4%)

IV

위해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5년)

< 분석개요 >

- 최근 5년(2020~2024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중 다발사고 유형을 분석
 -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사고, 놀림·끼임 사고, 이물 삼킴/흡인 사고,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1. 미끄러짐·넘어짐

- (연도별) 최근 5년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연평균 5,870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5,217건으로 전년(6,464건) 대비 1,247건(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최근 5년간 연도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미끄러짐·넘어짐	5,969	5,155	6,547	6,464	5,217	29,352

- (발달단계별) ‘걸음마기’ 10,953건(37.3%), ‘학령기’ 10,026건(34.2%), ‘유아기’ 7,631건(26.0%), ‘영아기’ 742건(2.5%)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의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어린이의 전 연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임.

- (성별) ‘남아’가 19,393건으로 66.1%, ‘여아’가 9,958건으로 33.9%를 차지함.

[표 35] 발달단계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합계
남아	476	6,988	4,756	7,173	19,393 (66.1)
여아	266	3,964	2,875	2,853	9,958 (33.9)
미상	-	1	-	-	1 (0.0)
합계	742 (2.5)	10,953 (37.3)	7,631 (26.0)	10,026 (34.2)	29,352 (100.0)
인구 천명당 접수 건수*	3.2	14.1	7.9	2.8	5.3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 (위해품목별) 상위 위해품목을 살펴보면, '바닥재' 11,818건(40.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4,283건(14.6%), '자전거' 4,078건(13.9%),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1,395건(4.8%),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1,263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어린이 미끄러짐·넘어짐 상위 위해품목 현황(5년)

(단위: 건, (%))

주요 위해품목	미끄러짐·넘어짐	
바닥재	11,818	(40.3)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4,283	(14.6)
자전거	4,078	(13.9)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1,395	(4.8)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1,263	(4.3)
놀이터 시설	1,261	(4.3)
기타 스포츠 장비 및 용품	1,016	(3.5)
위생도기 및 욕실가구	578	(2.0)
유아용 가구	419	(1.4)
스포츠, 레저시설 및 서비스	406	(1.4)

□ 2024년 미끄러짐·넘어짐 주요 접수 사례

[바닥재]

- 2024년 9월 아파트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수도꼭지에 눈꺼풀을 부딪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세, 여)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 2024년 3월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두개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4세, 여)

[자전거]

- 2024년 12월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회전교차로 표지판에 우측 손을 부딪쳐 발생한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9세, 남)

2. 추락 사고

- (연도별) '추락' 사고는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4,846건으로 전년(5,796건) 대비 950건(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추락 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추락사고	4,144	3,750	5,274	5,796	4,846	23,810

- (발달단계별) '걸음마기가 9,166건(38.5%), '영아기' 7,241건(30.4%), '유아기' 4,132건(17.4%), '학령기' 3,271건(13.7%) 순으로 나타남.
- '추락' 사고는 '영아기·'걸음마기'에 다발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 영아기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추락' 사고*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아'가 13,286건으로 55.8%, '여아'가 10,524건으로 44.2%를 차지함.

[표 38] 발달단계별 추락사고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합계
남아	3,806	5,078	2,403	1,999	13,286 (55.8)
여아	3,435	4,088	1,729	1,272	10,524 (44.2)
합계	7,241 (30.4)	9,166 (38.5)	4,132 (17.4)	3,271 (13.7)	23,810 (100.0)
인구 천 명당 접수 건수*	31.4	11.8	4.3	0.9	4.3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 (위해품목별) '추락'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은 '침실가구' 8,644건(36.3%), '놀이터 시설' 4,270건(17.9%), '유아용 가구' 3,083건(12.9%), '거실가구' 2,496건(10.5%) 등의 순으로, 침실 내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5년간 '웃갈아입히는 테이블(기저귀 교환대)'에서 추락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년) 7건 → ('21년) 19건 → ('22년) 78건 → ('23년) 156건 → ('24년) 187건

[표 39] 어린이 추락사고 주요 위해품목(5년)

단위 : 건, (%)

주요 위해품목	추락사고	
침실가구	8,644	(36.3)
놀이터 시설	4,270	(17.9)
유아용 가구	3,083	(12.9)
거실가구	2,496	(10.5)
주방가구	1,512	(6.4)
기타가구 및 가구부품	1,060	(4.5)
학생용 및 서재용 가구	742	(3.1)
기타 스포츠 장비 및 용품	206	(0.9)
위생도기 및 욕실가구	173	(0.7)
완구	167	(0.7)

□ 2024년 추락 주요 접수 사례

[침실가구]

- 2024년 2월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세, 남)

[놀이터 시설]

- 2024년 5월 공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흉부를 부딪힌 후 골절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2세, 남)

[유아용 가구]

- 2024년 5월 백화점 기저귀 교환대(약 70cm)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얼굴 찰과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0세, 여)

3. 놀림·끼임 사고

- (연도별) 물건이나 시설 등에 의한 ‘놀림·끼임’ 사고는 연평균 1,048건 발생하였으며, 2024년은 663건으로 전년 대비 535건(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0] 최근 5년간 연도별 놀림·끼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놀림·끼임	1,274	939	1,168	1,198	663	5,242

- (발달단계별) ‘걸음마기’ 2,612건(49.8%), ‘유아기’ 1,329건(25.4%), ‘학령기’ 1,042건(19.9%), ‘영아기’ 259건(4.9%)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아’가 2,938건으로 56.0%, ‘여아’가 2,300건으로 43.9%를 차지함.

[표 41] 발달단계별 놀림·끼임 사고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합계
남아	144	1,441	743	610	2,938 (56.0)
여아	115	1,168	585	432	2,300 (43.9)
미상	-	3	1	-	4 (0.1)
합계	259 (4.9)	2,612 (49.8)	1,329 (25.4)	1,042 (19.9)	5,242 (100.0)
인구 천 명당 접수 건수*	1.1	3.4	1.4	0.3	0.9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 (품목별) ‘놀림·끼임’ 사고의 주요 피해품목은 ‘문’이 2,323건(44.3%)이었으며, ‘기타 승용물’ 844건(16.1%), ‘자전거’ 417(8.0%), ‘리프트 시설’ 273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 어린이 놀림·끼임 사고 주요 위해품목(5년)

(단위: 건, (%))

주요 위해품목	놀림·끼임 사고	
문	2,323	(44.3)
기타 승용물	844	(16.1)
자전거	417	(8.0)
리프트 시설	273	(5.2)
침실가구	137	(2.6)
주방 가전	125	(2.4)
창틀	103	(2.0)
놀이터 시설	100	(1.9)
자물쇠 및 방범용품	86	(1.6)
헬스 장비	74	(1.4)

□ 2024년 놀림·끼임 주요 접수 사례

[문]

- 2024년 4월 방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발생한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3세, 남)

[기타 승용물]

- 2024년 3월 차 문 경첩 부위에 왼손 손가락 4개가 끼이며 발생한 찰과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세, 남)

[자전거]

- 2024년 11월 자전거를 타다가 체인에 발이 끼이면서 우측 뒷꿈치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0세, 여)

4. 이물 삼킴/흡인 사고

- (연도별) 최근 5년간 ‘이물삼킴/흡인’ 사고는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은 1,129건으로 전년(2,101건) 대비 972건(4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최근 5년간 연도별 이물 삼킴/흡인 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이물 삼킴/흡인	2,011	1,712	2,091	2,101	1,129	9,044

- (발달단계별) ‘걸음마기’ 4,926건(54.5%), ‘유아기’ 2,422건(26.8%), ‘학령기’ 1,160건(12.8%), ‘영아기’ 536건(5.9%)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아’가 4,864건으로 53.8%, ‘여아’가 4,175건으로 46.2%를 차지함.

[표 44] 발달단계별 이물 삼킴/흡인 사고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합계
남아	262	2,454	1,416	732	4,864 (53.8)
여아	273	2,469	1,005	428	4,175 (46.2)
미상	1	3	1	-	5 (0.0)
합계	536 (5.9)	4,926 (54.5)	2,422 (26.8)	1,160 (12.8)	9,044 (100.0)
인구 천 명당 접수 건수*	2.3	6.3	2.5	0.3	1.6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 (위해품목) 어린이 ‘이물 삼킴/흡인’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은 ‘완구’가 4,145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759건(8.4%), ‘기타 생활용품’ 383건(4.2%), ‘배터리, 전지 및 액세서리’ 333건(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가 호기심에 구슬, 조립용 블록 등을 코나 귀에 넣거나 삼켜 발생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물구슬’, ‘워터비즈’, ‘수정토’ 등 물과 닿으면 팽창하는 구슬을 삼키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5] 이물 삼킴/흡인 주요 위해품목(5년)

(단위 : 건, (%))

주요 위해품목	이물질 삼킴/흡인	
완구	4,145	(45.8)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759	(8.4)
기타 생활용품	383	(4.2)
배터리, 전지 및 액세서리	333	(3.7)
서적·인쇄물 및 음반	318	(3.5)
곡류-콩류	255	(2.8)
의약외품	216	(2.4)
모조보석 제품	212	(2.3)
가정용 청소 및 세탁용품	200	(2.2)
빵(떡) 및 과자류-과자	180	(2.0)

□ 2024년 이물 삼킴/흡인 주요 접수 사례

[완구]

- 2024년 7월 콧구멍에 플라스틱 구슬을 집어넣었으나, 빠지지 않아 체내 이물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3세, 여)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 2024년 6월 방에서 2cm의 네오디움 링 자석 삼켜 소화계통 이물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세, 남)

[기타 생활용품]

- 2024년 4월 아파트 거실에서 동전을 삼킨 후 목에 걸려 이물질 제거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세, 여)

5.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 (연도별)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을 입는 사고는 2021년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2024년 467건으로 전년 대비 94건(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고온 물질	560	354	461	561	467	2,403

- (발달단계별) '걸음마기' 1,379건(57.4%), '영아기' 377건(15.7%), '학령기' 359건(14.9%), '유아기' 288건(12.0%)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걸음마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도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별) '남아'가 1,391건(57.9%), '여아'가 1,011건(42.1%)으로 나타남.

[표 47] 발달단계별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현황(5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합계
남아	224	839	147	181	1,391 (57.9)
여아	153	539	141	178	1,011 (42.1)
미상	-	1	-	-	1 (0.0)
합계	377 (15.7)	1,379 (57.4)	288 (12.0)	359 (14.9)	2,403 (100.0)
인구천명당 접수건수	1.6	1.8	0.3	0.1	0.4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25. 1. 20. 기준) 자료 기준

- (위해품목)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의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938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기, 접시 및 컵' 265건(11.0%), '이·미용 및 생활가전' 257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가정용 전기밥솥, 가열식 기습기 등 증기에 데인 사례가 많았고, '유아기'·'학령기'의 경우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와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48]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 주요 위해품목(5년)

(단위 : 건, (%))

주요 위해품목	고온 물질	
주방 가전	938	(39.0)
식기, 접시 및 컵	265	(11.0)
이·미용 및 생활가전	257	(10.7)
취사도구	238	(9.9)
냉난방 및 계절가전	177	(7.4)
주방용구 및 용품	99	(4.1)
가정용 공구 및 용품	91	(3.8)
가정용 난방·환기용품	50	(2.1)
면류	42	(1.7)
의료용구	36	(1.5)

□ 2024년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주요 접수 사례

[주방 가전]

- 2024년 3월 보호자가 정수기 뜨거운 물을 받던 중 아이와 부딪혀 물이 쏟아지면서 아이의 등 및 가슴 배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세 여)

[식기, 접시 및 컵]

- 2024년 12월 끓고 있던 커피포트로 손으로 건드리면서 물이 쏟아져 손바닥, 우측 허벅지 등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0세, 여)

[아·미용 및 생활가전]

- 2024년 5월 고데기에 손가락을 데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세, 남)

1. 영아기(0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추락

- 침대, 소파 등의 아래에 완충재를 설치하고 아이를 높은 곳에 혼자 두지 마세요.
-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 기구는 잠깐 사용하더라도 안전띠를 채워주세요.
-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아이를 눕혀 안전띠로 고정한 뒤 기저귀를 교환해 주세요.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 과일 껍질, 바퀴 달린 장난감 등을 바닥에서 치워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식탁, 화장대, 서랍장 등 각진 가구 모서리에는 보호덮개를 붙여주세요.
- 욕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이나 스티커를 사용해 주세요.

□ 이물질 삼킴/흡인

- 자석, 건전지 등의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 주세요.
- 의료용품이나 세제류 등은 아이의 시야에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 고온 물질

- 아이를 안거나 업은 채로 뜨거운 음식 등을 먹거나 조리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뜨거운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치워주세요.

2. 걸음마기 [1세~3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 아이가 유아용 완구 등을 입에 물고 다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걸음마기는 신체 균형감각이 완전치 않지만,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해 넘어지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요
- 가전제품의 전선을 정리한 뒤 벽 쪽으로 지나게 하여 아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 매트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추락

- 높은 곳이나 계단, 창문 근처 등에서는 항상 아이를 지켜봐 주세요.
- 침대, 세탁기 근처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품을 치워주세요.
- 가정 내 트램펄린을 사용할 때는 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이물질 삼킴/흡인

-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3~3.5cm, 만36개월 아이 목구멍 크기) 이하의 음식이나 물건, 장난감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 자석, 건전지 등의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 주세요.
- 어린이 완구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놀림·끼임(부딪힘)

- 가정 내 방문이나 가구 등 손발이 끼이기 쉬운 문틈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세요.
- 엘리베이터 탑승 시 아이가 문에 손을 대거나 몸을 기대지 않도록 감독해 주세요.

3. 유아기 [4세~6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잦은 놀이터, 키즈카페 등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사용법과 안전 수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어린이가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는 사전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사용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 추락

- 침대 아래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완충재를 설치해 주세요.
- 그네, 시소 등을 타고 내릴 때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 쇼핑카트나 유모차 등을 이용할 때는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띠를 꼭 채워주세요.

□ 이물질 삼킴/흡인

- 조립 완구는 적정 나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고 부모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귀나 코에 넣지 않도록 감독해 주세요.
- 구슬이나 스티커 등으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입에 넣고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 놀림·끼임

- 어린이 자전거 등을 탈 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페달에 발을 정확히 올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에는 어린이가 걸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선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학령기 [7세~14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감독해 주세요.
- 미끄럼틀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 수영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의 표면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동 중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추락

- 철봉을 이용할 때 어린이의 키에 맞는 철봉을 이용하고, 거꾸로 매달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집라인 등 놀이기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 축구, 야구 등 공을 이용한 체육활동은 부딪히거나 공에 맞을 수 있으므로, 다른 어린이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장난감 총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베임·찔림

-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 면봉이나 귀이개 사용 시 면봉을 짧게 잡고 사용하며, 귓속 깊이 넣거나 눈 주위 사용은 자제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어린이 관련 제품 품질 개선 유도 등 위해저감 활동과 연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 및 예방문화 확산 지원
 -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 게시 및 배포
 - (행정안전부 대상)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일기장」 내 콘텐츠 제공
 - (지자체 대상) 어린이 안전사고 시책 수립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통계」 세부 분석자료 제공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주요 안전사고별 어린이사고 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확산